

청자박물관, 민간 지원 체제로 바뀐다

강진군, 개관 28년만에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

지원단 업체에 '맞춤 지도'... 청자산업 활성화 기대

강진군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자박물관의 운영체계를 개관 28년 만에 민간업체 지원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강진군은 그동안 청자 생산·판매 중심으로 운영하던 청자박물관의 운영체계를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민간업체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청자산업 활성화 중·단기 계획을 수립, 7월부터 점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강진청자박물관은 1986년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로 설립된 이래 기술 개발을 통한 청자 재현품 생산 판매에 주안점을 두어 왔지만, 23일 발표한 강진청자박물관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 업체에게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청자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자박물관은 분야별 최고 전문인력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언제든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민간업체 지원단은 연구개발실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했으며 청자 소지(흙)와 유약 등 청자 재료의 확보를 위해 강진지역에 산재한 청자 원료의 조사 및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

또 청자박물관내에 민간업체 지원 상담실을 설치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적극적인 기술지도는 물론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하는 등 업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하게 된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청자박물관 생산기능을 연구기능으로 전환해 민간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국립박물관 승격 및 국립고려청자연구소 설립 추진으로 강진의 전통문화 자산인 고려청자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우철 강진청자협동조합장은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진=남철희기자 chouli@



4m 대형가오리 5만원에 판매 지난 20일 진도 해역에서 멸치잡이 그물에 걸린 길이 4m, 무게 0.8t의 대형 가오리. 대형 가오리는 먹물 수 없어 사료용으로 가공되는데 이 가오리는 진도수협 위판장에서 5만원에 판매됐다. (진도수협 제공)

전라도 대표 맛은 단연 "남도 한정식"

전남도 설문조사

전라도 음식의 백미인 '남도 한정식'이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으로 뽑혔다.

전남도가 최근 와이즈리서치에 의뢰해 도민(503명)과 타 시도민(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직접면접)를 한 결과,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으로 타 시도민 38.5%(199명)와 도민

30.2%(152명)가 남도한정식을 꼽았다. 다음은 불고기와 떡갈비, 간장게장, 생선회, 낙지, 흥어삼합 순이었다.

음식점 선택기준은 '맛집이나 유명한 곳을 물어서'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인 소개'(192명), '교통(이동수단)이 편리한 곳'(191

명) 순이었다.

영역별 만족도로 음식메뉴는 3.63점, 친절서비스는 3.44점, 음식점 시설은 3.23점이었다. 특히 전남 음식점의 경쟁력으로 도민이나 타 시도민 모두 '음식의 맛'(도민 3.97점, 타 지역민 4.04점)을 꼽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동부권



보성 회천감자 서울서 인기몰이

50개 전통시장서 10kg들이 3500박스 2시간만에 매진

해풍 맞고 자라 맛 좋고 간식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

전라남도는 23일 "서울시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실시한 직거래장에서 전남의 대표 농산물인 보성 회천감자가 2시간 만에 당일 공급물량을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판매전은 오전 10시부터 중구 중앙시장에 비롯한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25개 구 50개 전통시장에서 열렸다. 판매전에서 회천감자는 10kg들이 3500박스가 모두 팔리고 추가 추진이 줄을 이었다.

북채의 고장인 보성의 또 다른 명품인 회천감자는 해풍을 맞고 자라 포클포클하게 맛이 좋으면서도 영양가도 높아 간식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하상우 회천 친환경농조합법인 대표는 "가라앉은 도매시장에 납품하면 7% 이상의 도매시장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번 전통시장과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 250만원 이상 추가소득을 올렸다"며 이후 추가 거래가 이뤄질길 기대했다.

강동구 명일시장을 찾은 김대진씨는 "전남의 길 좋고 맛있는 농산물을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시중가보다 3000~4000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흡족해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의 산지 생산자조직과 서울의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농산물 가격을 협의해 책정하는 정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도매시장과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는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커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생 모델로 정착될 전망이다.

명칭한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상인연합회와의 직거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유통모델"이라며 "연말까지 매일 지역 대표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상인연합회와 전남의 각 지역별 생산자단체가 정례적으로 상품을 발굴해 판매하는 체제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시장 아들 땅 논란' 아파트 건설 제동

전남도, 다산SC '주택 건설 반려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시장의 아들 소유 땅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제동을 걸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다산SC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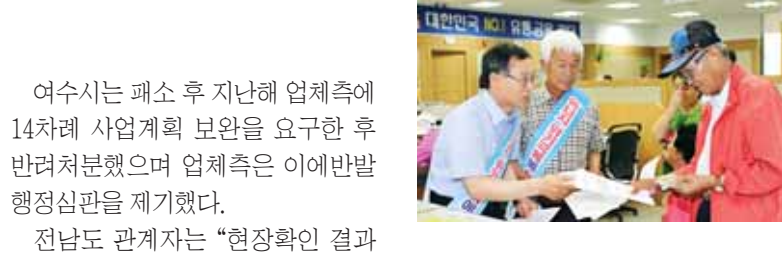
도 행정심위는 청구인(㈜다산SC)이 제시한 진입도로 개설과 토사반출용도로 개설 등이 어려운 데다 주민 반대로 3분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인정, 여수시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행정심판이 주목받은 것은 아파

트 예정부지(4만4000여㎡)에 김중석 여수시장의 두 아들 소유 땅 8900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 사업은 아파트 부지 주변으로 3천여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등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 반발로 지난 2010년 여수시가 불허했다. 이후 업체측이 진입로 개설 등을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11년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김 시장의 두 아들 땅 포함 사실이 알려지고 여수시의 소극적인 소송 대응 의혹에다 대법원 상고 포기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저주 소송' 논란이 확산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군 에너지 절약본부 구성



구례군이 원전 일부 가동중단으로 울여를 전력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례군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했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가두캠페인 등 계도하고(사진), 다음날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순천=김동호기자·동부취재본부장 dhkim@kwangju.co.kr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왕인국화축제, 서남권 대표축제로

영암군

민선 5기 1년여를 남겨둔 23일 김일태 영암군수(사진)는 "공약 53건 가운데 삼호고등학교 설립 등 50건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94%의 높은 진척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공약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 5기 김 군수는 영암군의 농축산업 내실화, 관광인프라 마련, 진정한 소풍행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자연계곡형 피서지 월출산 기차랜드에 실내 물놀이장시설인 황도스파를 함께 묶어 사계절 관광객의 기쁨을 마련했고, 가야금 산조 참시자인 김창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국내 최초의 가야금테마공원이 올해 하반기 문을 열게 된다. 오색천란한 국화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1억 송이 왕인국화축제'는 서남권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3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된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는 영암군이라는 명칭을 전세계로 알렸다. /영암=문영선기자 moon@



삼호고 설립 등 공약 실천

인구감소·고령화 걸림돌

1990년 군서농공단지 조성 이후 무려 22년 만에 영암을 일원에 식품산업으로 특화된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에 나서 2014년 분양을 바라보고 있는 등 새로운 산업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김 군수는 '농축산물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농축산업이 살 길'이라며 '달마차쌀 골드의 '명품화', 인공수정에서 고급육 생산까지 영암 한

우에 대한 체계적인 사육관리 등에 나서고 있다.

또 농번기 농민들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도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농업인 상담소 2곳을 신축하는 등 '다가서는 농축산업 대책'을 통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110여원을 돌파한 군민장학회 기금을 통해 관내 우수학생 지원, 고교 방과 후 왕인아카데미 학습을 통해 4년제 대학 합격률 향상,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원어인 교사 배치 및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의 대책도 추진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에만 특별교부세 40억원, 필수재원인 보통교부세도 사상 최고액인 1337억원을 가져와 146억원에 달했던 지방채 무액도 50% 이상을 갚았다"며 "여기에 48개 분야에서 65억원,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46개 사업에서 840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가져와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줄어들고 있는 인구 및 고령화 문제, 월출산 케이블 설치 문제, F1 그랑프리 개최 지속 여부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영암=문영선기자 moon@

놀고·먹고... '3색 5락' 체험 섬 조성

목포시, 달리도에 2017년까지

목포항에서 서쪽으로 5.6km 떨어진 달리도가 '3색(色) 5락(樂)'의 체험 섬으로 조성된다.

자연·전통문화·일상의 기억이 어

우러지는 '3색'과 쉬고·놀고·먹고·자고·느끼는 '5락'이 있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달리도가 안행정부의 '2014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구기 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25억원 등 모두 31억원을 들여 내년 부터 2017년까지 체험 섬 조성 사업을 펼친다.

특산물 브랜드 개발·전승문화 복원 등이 골자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소풍 공원·원두막 등 섬 생활 체험 중심시설, 친수 생태 탐방로, 해양휴양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여자만 갯벌노을축제

여수 여자만갯벌노을축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다양한 체험행사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개매기 체험, 새고막 '바지락캐기, 뱀배타기, 맨손고기잡이, 로컬피푸드 체험 등 여자만갯벌의 특성을 살린 체험행사에 가족 참가자들이 시간가는 줄 모른 채 몰입하고 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여자만갯벌노을축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다양한 체험행사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개매기 체험, 새고막 '바지락캐기, 뱀배타기, 맨손고기잡이, 로컬피푸드 체험 등 여자만갯벌의 특성을 살린 체험행사에 가족 참가자들이 시간가는 줄 모른 채 몰입하고 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 회천서초교생들 택시로 서울 나들이

보성 회천서초교(교장 공정열) 학생, 교직원, 학부모 14명이 최근 2박3일간 택시로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서울강북 모범초등학교(회장 이상홍)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올해로 3번째다. 서울강북모범초등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을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산간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초청행사를 갖고 있다.

이들 학생 등은 지난 12일 종이나라 박물관에서 탈 만들기,애니메이션센터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 남산 케이블카 탑승, 창덕궁, 코엑스 아쿠아리움, 롯데월드 등을 체험한 뒤 13일에는 서울대를 찾았다. 공정열 교장은 "3년째 이어진 이 아름다운 동행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뜻 깊은 시간이며,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나고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섬진강변 풍광따라 자전거길 열린다

광양시 배알도 수변공원~섬진강 둔치공원 29일 개통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진강변에 명품 자전거 길이 오는 29일 열린다.

광양시는 23일 "광양시 태인동 명당(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다압면 섬진강 둔치공원까지를 연결하는 섬진강 자전거 길이 3년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29일 섬진강 둔치공원에서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안행정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와 광양시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안행정부정관, 전라남·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섬진강 수계관 시장·군수, 의장, 자전거 동호인,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개통기념 테이프 커팅에 전문 동호인과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섬진교에서 섬진강 자전거 길의 시발점인 태인동 명당(배알도 수변공원)

까지 17.5km 구간에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인다.

시 관계자는 "섬진강 자전거길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물론, 지역의 축제, 먹거리, 볼거리와 여수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자전거길 전체 구간은 광양시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다압면 남도대교에서까지 총 37.7Km로 섬진강 자전거길 사업 구간(17.5Km)과 섬진강 테마로드길 사업 구간(20.2Km)으로 구분된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는 총 194억원이 투입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